

태국의 외환위기와 금융개혁

이 성 량*

- 목 차 -

1. 서 론
2. 태국외환위기의 원인 및 과정
3. 태국의 IMF 구제금융
4. 태국의 금융구조 조정
5. 태국경제 구조조정의 과제
6. 결 론

I. 서 론

1997년 7월에 태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balance of payments crisis)는 21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이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신찬 향후전망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태국의 외환위기는 금융위기(financial crisis)로 확대되었고, 금융위기가 경제위기(economic crisis)로 증폭되면서 태국은 1998년 마이너스 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제침체의 와중에 있다.

* 동국대학교 아시아지역학부

지난 20년간 년 7%의 실질경제성장률을 기록한 태국이 이러한 뜻밖의 커다란 경제침체를 맞은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미처 예견하지 못한 사태였으며, 이러한 태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자본시장 투자자들이 신흥시장(emerging markets)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평가 및 외자상환지급 능력에 대한 불안감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확대됨으로써 외자차관에 대한 만기연장 거부를 유발시켰다. 외자만기연장 거부는 유동성 부족(liquidity crisis) 및 국가 신용등급하락 등 연쇄적인 악조건의 노출을 가져왔고, 급기야 태국의 위기가 아시아 전역에 확산되었다.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1998년에 들어서는 선진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러시아와 중남미 시장까지도 여파가 확산(contagion)되어 세계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상태이다.

지난 20년간의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아시아 경제는 또 한번 새로운 경제구조 조정, 즉 경제의 유연성을 강화시키고, 실물경제 발전만큼 성장하지 못한 금융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해야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물경제에 걸맞은 금융제도 및 감독 기능의 구축 등을 통해 향후 아시아 경제의 재도약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시아국가들의 당면 과제라 하겠다.

태국은 한국과 달리 정리해고가 자유로워 경제구조의 경직성이 없기 때문에 태국경제의 구조조정은 금융제도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태국의 경제위기의 발단은 태국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아니며, 정부의 과잉 재정적자도 아니다. 태국경제위기는 전형적인 거품(bubble)경제의 붕괴가 자산 디플레로 연계되면서 금융기관부실 여신의 확대, 실물경제 붕괴로 이어졌다 하겠다.

본 연구는 2장에서 태국의 경제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3장에서는 현재 태국이 시도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정책진행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며, 특히 4장과 5장에서는 태국의 금융구조조정에 초점을 두고 태국의 금융구조 조정이 태국 경제 구조개혁의 핵심인 만큼, 금융구조조정의 문제점 및 현재 진전 상황과 남아있는 과제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II. 태국외환위기의 원인 및 과정

미국의 경제학자 Paul Krugman 교수는 *Foreign Affairs*(1994)에 실린 "The Myth of Asia's Miracle"에서 Alwyn Young(1992)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시아의 경제성장은 경제의 효율성보다는 집중적인 투자 및 인구증가로 인한 성장이기 때문에 향후 경제 성장률을 그렇게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신화적인 것이며 아시아 지역경제의 역동성은 지난 20년간 연 7%정도의 경제성장이 말해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과연 아시아의 경제가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논의는 향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계속 될 것이며, Young과 다른 결과를 발표한 연구도 있다(Sarel 1997).

그러므로 태국경제의 위기를 단지 태국경제의 효율성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태국경제에 위기를 초래했다 하겠다. 태국의 노동시장은 유연하며, 재정적자도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 경제위기가 단순한 경제구조의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1990년에 들어와 금융자유화로 초래된 유동성과잉이 금융기관의 도덕성 해이(moral hazard)로 이어져 저효율 과잉 투자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경상수지적자가 누적되었다. 또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여신 증가로 금융기관 위협의 노출, 단기 부채로 자산-부채의 만기의 미스매치(mismatch)의 노출, 중국 위안화의 절하 및 달러고로 인한 경제상황에서 세계시장 투자자들은 태국환의 고정환율제의 지속적인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리하여 환투매가 1997년도에 시작함으로써 외환시장은 불안해졌고 민간기업의 외채지불유예,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증가 등으로 외환위기는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장에서는 태국 외환위기 도래의 배경으로서 1985년에 합의된 플라자(Plaza)협정으로 시작된 엔고 정책이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과잉유동성(excess liquidity) 및 고도의 경제성장을 초래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로 인한 급속한 자본자유화, 90년대에 들어와 투자의 효율성 저하 및 위안화의 절하 등 외부의 충격요건 등을 태국의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Plaza 협정과 엔고 현상으로 아시아로 국제 자본 유입

1985년 G-7국가들은 일본의 확대되는 무역수지 흑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엔고 및 저달러 정책을 국제 환율시장에 추구하기 시작하였고, 일본은 국내 경기를 저금리 정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일본경기는 80년대에 최대의 호황을 누렸으며, 엔고의 현상에 따라 일본의 대 아시아 투자 또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표1〉 참조).

〈표1〉 일본의 지역별 투자(백만 달러)¹⁾

	1980	1986	1990	1994	1996
중국	-	226	349	2565	2510
아시아 ²⁾	1186	2327	7054	9699	11614
미국	1484	10165	26128	17331	22005
유럽	578	3469	14294	6230	7372

주 : 1) 신고기준 2) 중국포함

자료: JETRO 백서, 「세계와 일본의 해외투자동향」, 각년호.

〈표2〉 국가별 태국(對泰國) 외국인 투자(백만바트)

국가명	1993	1994	1995	1996(1-6)
일본	68,497	64,276	196,613	87,274
미국	10,919	32,915	64,335	50,109
유럽	19,245	33,998	58,612	na
대만	5,238	11,937	45,096	22,178
싱가포르	5,905	14,263	38,055	16,554
한국	804	740	42,467	7,870
전체	108,734	147,753	410,899	145,610

주 : 허가기준

자료: BO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태국편람』, 378.

엔고현상이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킴에

따라서 태국은 87년에서 91년까지 연 10.8%의 고도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었으며 92년에서 96년까지 전보다는 약간 둔화됐으나, 여전히 상당히 높은 연간 8.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엔고현상은 일본의 태국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증가시켰으며 전체 외국인 투자의 절반이상이 일본 투자일만큼 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투자액수가 큰 일본의 중요투자 대상국이다(〈표2〉 참조).

〈표3〉 외환으로 표시된 태국의 장기부채

(Currency composition of long-term debt in percent, %)

	1970	1980	1989	1994	1996
독일 마르크	17.6	4.7	3.1	2.3	2.1
일본 엔	6.0	25.3	41.4	51.1	45.4
미국 달러	21.6	41.0	22.9	23.8	32.1
종합외환(Multiple Currency)	50.7	24.3	25.1	18.6	17.5

자료 : Word Bank, 1998, *Global Development Finance, Country Table*.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5년 플라자협정에 의해 엔고의 현상이 시작됨으로써 일본의 대 아시아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표3〉과 같이 태국의 장기부채는 1980년까지는 엔화로 표시된 부채가 25.3%에 불과하였으나, 1989년에는 41.4%로 증가하였고 1994년 51.1%로 절정을 이루었다.

80년대의 일본경제의 호황은 아시아경제 전반에 호황을 불러 왔으며, 태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 자본의 유입, 특히 단기자본의 유입을 촉발시켰다(〈표4〉 참조).

〈표4〉 단기부채 비율(%)

국 가	단기부채/총부채	단기부채/외환보유고
태 국	46	107
인도네시아	24	160
한 국	67	300

자료 : Word Bank, 1998, *Global Development Finance*, p. 35.

2.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증가

태국 및 아시아의 경제호황은 자본유입, 특히 단기 자본유입을 촉발시켰으며, 세계의 금융자유화의 물결 속에 태국 또한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3년 9월 역외 금융시장(Bangkok International Banking Facility)을 설립하였다. 역외금융시장(BIBF)은 태국금융시장의 외자유입은 물론, 금융산업의 자유화를 뜻하는 것이며, 원래의 취지는 저금리의 달러 자금을 외국으로부터 유입하여 태국을 동남아시아 국제금융시장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입된 자본들은 국제적인 거래에 활용되기보다는 국내 부동산 및 주식에 투기됨으로써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버블 경제상황을 초래했다. 또한 이러한 금융자유화의 진전을 따라오지 못했던 태국의 금융제도 및 규제 후진성, 금융감독기능의 실패, 족벌주위(cronyism) 및 부정부패로 인해 자본이 비효율성 부분으로 쏠리면서 경제구조에 상당한 부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총 금융기관의 대출의 약 20% 정도가 부동산 시장에 대거 투입됐다는 것은 경제순환(economic cycle)에 민감한 부동산 시장이 잘못될 경우¹⁾ 금융기관의 위험 노출이 증가하면서 부실여신의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금융기관의 단기부채(short-term liabilities)와 장기자산(long-term assets)의 미스매치(mismatch)

〈표5〉 태국의 외자도입 만기 현황

민간부분	1970	1980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만기기간(년)	11.5	8.7	8.9	14.7	10.7	17.5	11.1	12.5	8.8	7.8

자료: Wor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p. 535.

태국의 차관도입의 만기기간을 보면 외환위기 전인 1995, 1996년에는 종전의 만기기간보다 약 3~4년 정도 줄은 것으로 나타난다(〈표5〉 참조). 이는

1) 1996년 방콕의 비 임대율 (vacancy rate)이 15%나 달했다.

수출증가 감소, 경제부진 등 경제여건이 악화될 경우, 태국경제가 외부 쇼크에 민감해 질 것이란 것을 예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민간외자도입, 기업투자 및 부동산 투자 등 투자의 수익효과가 장기 시간을 요구하는 부문에 몰릴 경우 더욱 외부의 쇼크에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 하겠다.

4. 경상수지적자의 누적

〈표6〉 태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단위: %, 억달러)

	1990	1993	1994	1995	1996	1997
실질 GDP 성장률	11.6	8.5	8.6	8.8	5.5	-0.4
수출증가율	14.9	13.2	22.7	25.1	1.8	-
수입증가율	-	13.5	17.9	30.0	3.1	-
경상수지	-73 (-8.5)	-63 (-5.7)	-81 (-5.6)	-136 (-8.2)	-147 (-8.0)	-

주 : ()안은 경상수지의 GDP 대비율

자료: World Bank, 1988, *Global Development Finance*, p. 39.

IMF, 1998. 5, *World Economic Outlook*, p.153.

〈표6〉과 같이 1990년대의 태국의 수출증가율은 1990년의 14.9%에서 1995년에는 25.1%까지 성장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1995년부터 시작된 엔화의 약세 및 1994년 절하된 중국위안화로 인해 수출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급속히 둔화하기 시작하며 1996년에는 1.8%의 수출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수입증가율은 1995년에 30%의 성장률이 나타남으로써 경상수지적자가 1995년에는 GDP대비 -8.2%, 1996년에는 -8%를 기록하는 등 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가) 비효율성 투자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는 투자효율비율(Incremental Capital Output Ratio)이 1990년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투자효율비율(ICOR)은 투자의 효

율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태국의 경우, 1990년도에 3정도의 ICOR이 1996년에는 5로 증가하였다. 이는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며, <표4>와 같이 단기 외자도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했을 경우 경제가 하강하게 되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소지가 있는 것이다.²⁾

(나) 고평가된 실효환율

<표7> 실질실효환율지수(Real effective exchange rate indexes),
2/96 ~ 12/97, (1988-1992 average=100)

국 가	12/1996	6/1997	12/1997
태 국	108	109	74
한 국	89	87	59
인도네시아	104	105	59
말레이시아	109	113	82

자료: World Bank, 1998, *Global Development Finance*, p. 35.

<표7>을 보면, 한국을 제외한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의 가격경쟁력이 1992년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은행 통계에 의하면 1990-1995년 사이 동남아 지역의 수출은 연간 18%(달러계산)정도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1996년 및 1997년 사이 동남아 지역의 수출경쟁력은 물량 및 총액으로 계산할 때 상당한 부진 현상을 초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초의 놀라운 수출의 증가로 태국경제는 수출이 계속 증가되리라 예측했고, 이로 인한 부주의로 외자차입에 있어 헤지(hedge)하지 않은 자산-부채의 미스매치가 가속화됨으로써 금융부실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2) 한국도 ICOR이 1990년에 3정도에서 1996년에는 5정도로 상승하였다.

Ⅲ. 태국의 IMF 구제금융

이 장에서는 태국이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구제금융 및 구제금융에 따른 경제정책을 설명하고자 한다. 태국정부는 1997년 8월 20일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표8>과 같이 일본과 IMF의 40억 달러씩을 비롯하여 세계은행의 15억 달러 등 총 172억 달러였다.

<표8> IMF 및 주요 국가의 자금지원 규모(단위: 억달러)

구 분	국 가	지원규모
국 가	일 본	40
	홍 콩	10
	중 국	10
	말레이시아	10
	싱가포르	10
	호 주	10
	한 국	5
	인도네시아	5
	브루나이	5
국제기관	IMF	40
	ADB	12
	World Bank	15
합	계	172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IMF 구제금융사례연구」, p. 57.

이렇게 태국정부가 IMF를 통한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된 것은 금융위기 초기에 외환보유고, 금융기관의 부실 여신규모 등에 대한 정부통제에 대한 불신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중앙은행 직속의 금융기관개발기금(Financial Institution Development Fund)이 무분별하게 부실금융기관에게 지원하였기 때문에 대외신인도가 급속히 하락함으로써 해외차입금의 만기연장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IMF는 1998년 3월까지 105억 4000만 달러를 태국에 지원하였으며 추후 합의사항 이행성과에 따라 지원의 계속 여부를 심사한다. 현재로는 IMF가 태국정부의 IMF 프로그램 시행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IMF의 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핵심은 경상수지 개선, 환율의 급락으로 인한 물가상승률 억제 및 전반적인 경제구조 개혁이다. 초기의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거시적인 차원, 즉 환율안정에 초점을 두었으며 제1차에서 5차까지의 협상을 통해 점차 미시적인 태국의 경제개혁, 예를 들어 파산법 및 차압법 개정 등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표9〉 거시경제지표 목표치(1997.8 제1차 의향서)

	1997	1998
경상수지	GDP 대비 5% 적자	GDP 대비 3% 적자
실질성장률	2.5%	3.5%
총외환보유고	4.2개월분 수입액	4.4개월분 수입액
물가상승률(평균)	7.0%	8.0%
재정수지	GDP 대비 1.1% 적자	GDP 대비 1% 흑자
외환보유고	230억 달러	245억 달러

제 1차 거시경제 목표치를 보면 1997년 8월 당시 경상수지는 GDP 대비 5% 적자, 성장률 2.5%, 재정수지 GDP 대비 1.1% 적자를 목표로 하였고 1998년에는 경상수지적자가 GDP의 3%, 실질성장률 3.5%, 재정수지는 GDP 대비 1% 흑자를 목표로 하였다.

1998년 8월에 IMF와 태국정부가 합의한 제5차 거시경제 지표 목표치에 따르면 1998년에는 경상수지가 GDP 대비 10% 흑자(제1차 의향서에서는 3% 적자)를 예상하여, 경상수지가 상당한 개선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국가 총생산의 증가보다는 지출의 감소, 즉 경제성장률(제1차 의향서에서는 1998년 경제성장률을 3.5%로 목표를 뒀)이 마이너스 7%를 기록함으로써의 경상수지 개선이기 때문에 현재 태국경제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10〉 거시경제지표 목표치(1998.8 제5차 의향서)

	1997	1998
경상수지	GDP 대비 2% 적자	GDP 대비 10% 흑자
실질성장률	-0.4%	-7.0%
총외환보유고	5개월분 수입액	7~7.5개월분 수입액
물가상승률(평균)	5.6%	9.2%
재정수지	GDP 대비 2.5% 적자	GDP 대비 3% 적자
외환보유고	270억 달러	260~280억달러

IMF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표11〉 참조) 고금리정책을 추구하였고(〈표12〉 참조) 20% 정도의 고금리는 환율을 안정시켰으나 실물경제는 붕괴상태에 이르렀다. 경제침체는 경상수지 적자를 목표치(GDP 대비 5% 적자)보다 훨씬 많이 개선(GDP 대비 2% 적자)했으나 실질경제성장률은 예측했었던 플러스 2.5% 성장률에서 마이너스 0.4%를 1997년에 기록하였다.

〈표11〉 태국의 환율 변화추이(바트 달러)

기간	'96	'97.12	'98.3	'98.6	'98.10
환율	22.65	48.15	38.8	40.2	40.8

KIEF, 『주간세계경제동향』, 각호.

〈표12〉 태국의 콜금리 변화추이(월 평균)

기간	96	'97.7	'97.8	'97.9	'97.10	'97.12	'98.1	'98.3	'98.8	'98.10
금리	12.0	18.66	15.43	23.87	18.72	21.73	21.51	20.57	13.0	12.0

KIEF, 『주간세계경제동향』, 각호.

IV. 태국의 금융구조 조정

태국경제의 구조조정은 금융개혁이 핵심과제라 하겠다. 태국의 경제는 특별

히 한국과 같이 재벌의 문제, 노사문제와 같은 경제의 왜곡보다는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자산 버블의 형성과 버블로 인한 과잉지출이 빚어낸 외환위기, 외환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되면서 비효율적인 실물경제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국정부는 지난 7월에 발생한 외환위기 후 IMF의 구제금융, IMF와의 경제개혁 협상 등 긴급한 경제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더욱이 태국정부는 지난 1년간 금융개혁안을 준비하고 있었고 최종적인 개혁안을 1998년 8월 14일 발표하였다. 이 장에서는 태국의 금융구조 조정안을 설명하고 금융구조조정안의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³⁾

1. 태국의 1998년 8월 14일 이전 금융개혁 조치안

태국정부는 1997년 7월 2일 환율 방어를 포기하고 1997년 8월 5일 42개 금융회사의 영업정지를 시행하였다.⁴⁾ 1997년 8월 11일 IMF와 172억 달러의 구제금융지원에 합의한 후, IMF 요구에 의해 금융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고 10월 14일 부실금융처리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골자로 한 대책안을 마련하였다. 1997년 10월 14일에 발표된 내용은 금융재건청(Finance Sector Restructuring Authority)을 신설하여 태국경제의 구조조정, 금융기관 합병 및 자기자본 조정 등 금융기관개혁을 총괄하게 하였으며 영업정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하는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rporation)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또한 예금주들의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감이 은행 불안감(bank panic)으로 이어져 급인출사태(bank run)를 막기 위하여 중앙은행 산하의 금융기관 개발기금(Financial Institutions Development Fund)⁵⁾의 보험제도를 명백히 공식화하였다.

3) 본 내용은 태국 및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 대응과정 “아세안 4개국의 외환위기 전개과정과 정책대응”, 1998. 1. 7. 한국은행 자료 인용.

4) 태국에는 91개의 금융회사가 있으나 이중 16개의 금융회사가 금융위기 직전인 1997년 6월 27일 영업정지 되었다.

5) FIDF 재원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의 0.1%를 출연 받아 조성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0.4%로 상향조정 되었다.

금융기관개발기금(FIDF)은 또한 1997년 12월 8일까지 부실금융기관에게 대출된 7020억 바트 및 3950억 바트의 지급보증의 일부분을 출자전환으로 하여 일부 부실금융기관을 국유화 시키기로 결정하였다. 1998년 12월 8일에는 58개 금융회사 중 56개사는 폐쇄하고 부실기관을 금융재건청이(FRA)이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영업폐쇄된 금융기관의 우량자산을 향후 국가은행인 라다나신은행(1998년 3월 16일 개설)이 관리토록 하였으며 자산관리공사(AMC)가 부실자산을 4~5년에 걸쳐 처리토록 하였다.

1998년 초에는 29개의 상업은행 중 4개 은행을 국유화하였으며 향후 국내의 투자자들에게 매각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 기준에 맞는 부실여신의 정리를 위하여 중앙은행은 부실채권의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는 대책을 1998년 7월 1일자로 시행키로 결정하였다.

〈표13〉과 같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을 부실채권으로 인정하고 3~6개월 이상 연체의 부실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0~15%에서 20~50%로 상향조정하였다.

〈표13〉 태국의 부실채권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태 (원리금 상환기준)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수정전	수정후	수정전	수정후
정상적 회수	Pass	Pass	0	1
1개월 이상 연체	Pass	Pass	0	2
3개월 이상 연체	Pass	Substandard *	0	20
6개월 이상 연체	Substandard *	Doubtful *	15	50
1년 이상 연체	Doubtful *	Loss *	100	100
회수불능	Loss *	Loss *	100	100

자료 : 한국은행, 1998. 7. 「아세안 4개국의 외환위기 전개과정과 정책대응」,
1998. 7.

* 부실채권

1998년 5월 달에는 태국중앙은행이 7개의 부실금융회사를 1000:1의 자본금 감자후 인수하고 태국하원은 정부가 18억 달러의 금융조정 재원을 위한

국내의 채권발행을 허용, 해외차입한도 상향조정, 유동성 부족해소 및 금융개혁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4개의 금융관련 법안을 승인하였다.

2. 1998년 8월 14일 발표된 금융개혁안

태국정부와 중앙은행은 금융개혁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포괄적인 금융패키지를 발표하였다(1998. 8. 14). 태국의 금융개혁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⁶⁾

1) 정부는 3조 바트(71.3억 달러)를 은행자본금으로 출자함.

(a) 기본자산(Tier One Capital) 개선

- 정부는 은행으로부터 우선주(preferred shares)를 인수하는 대신 10년 만기 국채를 지급함.
- 자본적정비율(Capital adequacy ratio)이 2.5%를 달성할 때까지 지원하고 향후 자본유치 규모에 비례하여 지원
- 은행은 대손충당금(loop provision)의 비율을 높여야 함.

(b) 보완자산(Tier Two Capital) 개선

- 은행은 후순위채권(subordinated bonds)과 국채를 맞교환, 보완자본을 개선시키고 채권 액수는 은행의 대출실적과 부실예산 정리에 따른 상각액으로 결정하되 위험가중자산(risk weighed asset)의 2%로 제한함.
- 자본적정비율이 규정 이하로 떨어질 경우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할 권리 보유.

2) 은행규제 제도의 변경(Regulatory Changes)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은행은 8.5%, 금융회사는 8%로 유지하나 기본자본금(tier one capital) 비율은 6%에서 4.25%로 인하하고, 보완자

6) *Asian Wall Street Journal*, 1998. 8. 14.;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 98·33 인용.

금(tier two capital)비율은 2.5%에서 4.25%로 인상함.

- 정상대출금의 1% 충당금(loan provision)을 보완자본(tier two capital)으로 인정하고 부실여신 정리를 2,000년까지 정리하는 기관에는 5년동안 부실채권을 대손상각처리하에 인정함.

3) 국유화된 4개 민간은행의 정리계획발표

- Bangkok Metropolitan Bank : 정부의 구조조정 이후 민영화 계획
- Siam City Bank : 정부의 구조조정 이후 민영화 계획
- First Bangkok City Bank : 국영은행인 Krung Thai Bank에 인수
- Bangkok Bank of Commerce : 부실자산은 자산관리회사(AMC)로 전환하고 우량자산은 Krung Thai Bank로 이관

4) 국영은행인 Krung Thai Bank의 자본금을 충당하고 2년후 민영화함.

5) 2개의 소형민간은행을 국유화함.

- Unlon Bank of Bangkok : 국영 Krung Thai Thanakit Plc.가 인수
- Laem Thoug Bank : 국영 라다나신(Radanasin)은행이 인수

6) 굴지의 종합금융회사였던 Dhana Siam을 포함한 5개의 자본증자에 실패한 종합금융사를 자본감자, 채권 및 주식 맞교환으로 국영 Krung Thai Thanakit Plc.가 인수함.

7) 금융기관은 민간 자산회사(private asset management companies)를 설립하여 부실자산 회복에 초점을 둠.

8) 정부 금융기관 구조조정 예상 집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원조달은 정부예산, 부실자산회복 및 국유기관 매각수입으로 충당함.

3. 은행개혁안의 문제점

태국정부가 제시한 은행개혁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부개혁방안에 동참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은행개혁을 은행자율에 맡긴 이유는 대형 부실은행 중 하나인 태국군인은행(Thai Military Bank)은 군부가 44%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시암상업은행(Siam Commerce Bank)은 국왕의 자산을 관리하는 왕실재산관리청(Crown Property)가 28%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들 대형부실은행을 강압적으로 정리할 경우 정치적으로 영향력있는 지분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율적인 은행구조개혁안으로는 은행들의 경영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은행개혁안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하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대형 태국은행이 없는 것이다. 태국정부가 국유화한 작은 방콕 메트로 폴리탄은행(Bangkok Metropolitan Bank) 및 시암시티은행(Siam City

〈표 14〉 태국의 10대 은행 자산 및 수익평가

서열 (Rank)	기관 (Institution)	자산 (백만\$) (Assets \$ millions)	수익 (Profits \$ millions)	수익률(Profit as % of)	
				자산대비 (Assets)	자기자본대비 (Equity)
1	Bangkok Bank	29,979	89.2	4.1%	4.1%
2	Thai Farmers Bank	16,835	16.9	0.1%	1.4%
3	Krung Thai Bank	16,744	4.5	0.0%	0.5%
4	Siam Commerce Bank	15,179	67.6	0.4%	7.7%
5	Bank of Ayudhya	10,452	41.5	0.4%	7.5%
6	Thai Military Bank	8,224	29.0	0.4%	6.2%
7	First Bangkok City Bank	6,008	-666.2	-	-
8	Siam City Bank	5,592	-296.0	-	-
9	Bangkok Metropolitan Bank	4,027	-499.8	-	-
10	Bank of Asia	3,350	-9.0	-	-

주 : 4.1.1997~3.31.1998년 조사자료 기간

주 : 총 ROA는 -1.294%

자료 : Asiaweek, 1998. 9. 11., p.111.

Bank)을 제외하곤 외국인 투자가가 인수할만한 대상이 없다.

이렇게 태국정부가 소극적으로 은행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이 진행되기 전에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이 성공한다면 이로 인해 신규대출이 늘면서 경기가 진작되기를 기대하지만, 이러한 개혁을 은행의 자율에 맡겼다는 것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

〈표 15〉 예측 은행부실 및 정리비용

총대출의 부실여신(%) (Forecast peak non-performing loans as % of total lending)	국민 총생산 대비 정리비용 (Estimated cost of banking crisis as % of GDP)
태국 35~40%	25~30%
한국 25~30%	25~30%
말레이시아 20~25%	15~20%
인도네시아 50% 이상	30~35%

자료 : Fitch IBCA, *Asiaweek*, 1998. 9.11., p. 71.

〈표 14〉에 나타나듯이, 태국의 10대 은행 중 최대 은행인 방콕은행을 비롯한 6개의 은행은 약간의 수익이 있으나 다른 은행들은 손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표 14〉에 나타난 수익률은 자세히 살펴보면 〈표 15〉에서 보듯이 자산의 부실이 총대출의 약 35~40%이고 국민총생산 대비 25~30%의 정리비용이 필요한바 과감한 금융개혁이 필요하나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집단의 반발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상태이다.

V. 태국경제 구조조정의 과제

태국정부의 금융개혁 및 경제구조조정은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1997년 8월 이후 IMF와 합의하에 1998년 8월의 5차 회의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태국의 경제개혁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아직도 금융개혁을 비롯한 법적 개혁이 숙제로 남아 있다.

태국의 경제개혁에 대해서 1998년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6~-8%, 환율은 1달러 당 40바트, 고금리 등 향후 경제 전망을 많은 사업가들이 비관적으로 예측한다. 사업가들의 비관적인 시각의 이유는 정부의 개혁의지가 기존세력의 저항에 약하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즉 정부는 현재까지 많은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아직도 정치적 세력이 강한 집단이 금융개혁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부실인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치적 역량이 있는 채무집단들이 새 파산법 및 차압법에 부정적으로 대치하고 저항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견제 및 공기업의 민영화에 저항이 강력하다.

태국은 1998년에는 2백만의 실업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총체적인 사회불안 여건 속에서 이해집단의 개혁저항 등으로 사업가들은 향후 경제전망에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경제여건의 악화가 장기화되면서 과연 개혁 정치인들이 개혁저항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나고 있다. 태국은 외국에서 평가할 때 IMF가 제시한 정책조건을 잘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투자자들에게 많은 신뢰감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IMF의 정책은 일단 태국환율을 안정시키는데 성공하였으나 향후 환율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더욱이 엄청난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을 과연 태국정부가 지속적인 현행정책으로 밀고 나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태국의 핵심금융개혁 중의 하나는 차압법안(foreclosure laws)의 개정이다. 태국경제는 지난 1년간 고금리로 인한 실물경제의 붕괴, 불안정한 환율 등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제4차 회의에서 점차 재정적자를 국민총생산의 3%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하는 등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태국의 금리 및 환율도 안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인 경제여건이 양호해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태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자금 유동성이 나아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이 정리되어야 한다. 부실대출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아

무리 거시경제 여건이 좋아진다 해도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회피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태국은행기관들의 부실 대출은 총자산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태국기업이 받은 모든 대출은 대부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되었으며 이 중 외국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이 612억 달러가 된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금융기관이 담보로 된 부동산을 매각하여 부실 대출금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담보로 된 부동산을 차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5년간 이자 지불을 안했을 경우에만 법원의 허락없이 차압할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채무기업이 4년 11개월 후 이자 지불을 하면 채권자는 다시 5년간의 유예기간을 채무자에게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채권기관들은 법정을 통해서 채무기업의 자산을 차압할 수 있는데 차압 판결을 받는데 1년 이상이 소모되며 만약 채권기업이 차압판결에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2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막상 차압된 자산이 매각됐을 경우, 채무기업이 자산 가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 법적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렇게 현행 차압법들이 채무기업 보호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태국의 금융개혁을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 10월 15일부터 하원국회에서는 개정될 차압법에 대한 토론이 시작됐으며 개정법안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즉 채무기업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강화시킴으로써 채권기관이 채무기업의 자산을 빠른 시간 내에 신속히 매각처리함으로써 부실여신 정리를 속히 진행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의회에서 토론되고 있는 차압법 개정안은 하원에서는 무사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나, 상원에서는 법안통과의 난항이 예상된다.

태국상원은 26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단체이나 대부분의 상원 의원들이 군인, 관리, 경찰 출신의 고급관리 및 기업가나 부유층 인사들로 태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IMF사태 이후 대부분이 채무자들이기 때문에 상원에서 차압법 개정이 실시될지 불투명하다. 설령 차압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채권기관들이 채무기업들의 자산을 차압해서 매각할 때까지는 2년 이상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돼 태국경제 개혁에 핵심

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다.

태국은 현재 유동성 부족으로 실물경제가 붕괴상태에 있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상당히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처럼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융재건위(Financial Restructuring Agency)가 영업취소된 기관들의 부실채산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지금 현재는 올해 말까지 320억 달러 채산을 매각해야 되는 계획보다 훨씬 작은 6억 달러 정도의 실적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외국인 투자 유치로는 방콕은행과 태국농민은행만이 의미있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을 뿐이다. 그것은 현행 차압법이나 파산법이 채무기업권의 보장에 치중되었으며 외국 투자자들의 평가로는 태국의 자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태국경제 여건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태국정부는 경제 주요부분에 외국인 투자지분을 지배비율까지 허용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규제에 관한 여러 가지 행정규제가 철폐되었고, 새로운 사업분야들이 허용되었다. 정부는 외국 투자인에 대한 토지의 리스(lease)에 대하여 현행 30년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고 한 번 더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였으며 국회심의를 거쳐 법제화된다.

태국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1997년과 1998년 초에는 태국경제의 환율 안정에 정책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미시적인 차원에서 구조개혁에는 신경을 못써 은행의 부실여신정리 및 자산매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태국정부는 국민의 정서 및 정치적 부담 때문에 부실금융기관의 매각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신중히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태국경제 개혁은 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국민 정서에 대한 정치적 부담, 기득권 세력의 저항 등이 난제로 남아 있다.

VI. 결론

태국은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면서 국제통

화기금과 합의한 내용을 잘 실행하고 있는 국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태국의 대외신인도는 많이 나아졌으나, 아직 민간부분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에는 경제에 많은 걸림돌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금융기관 부실정리는 많은 금융개혁안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혁안이 은행들의 자원에 구조조정을 맡기고 있어 과연 개혁안이 잘 실천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둘째, 금융기관들이 부실대출을 정리하려면 담보로 된 자산을 쉽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태국의 차압법을 고려하면 담보로 된 자산매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금융구조조정은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태국의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이들 다수가 부유층, 국회의원, 전관리 등으로서 금융개혁안에 기득권세력에게 불리한 항목들을 삭제하거나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 못하게 저지할 가능성이 크다.

태국경제개혁은 현상적으로는 상당한 진전이 있어 보이지만 아직 핵심 개혁안이 실효를 거두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중인 태국경제개혁이 성공적일지는 아직 미지수라 하겠다.

<참고문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3, 「IMF 구제금융 사례연구」.
 한국은행, 1998. 7, 「아세안 4개국의 외환위기 전개과정과 정책대응」.
 _____, 1998. 1, 「태국 및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 대응과정」.
Asiaweek, Various Issues.
Asian Wall Street Journal, Various Issue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Various Issues.
 IMF, 1997. 12,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 Developments, Prospects, and Key Policy Issue*.

_____, 1997. 12, *Staff Studies for the World Economic Outlook*.

_____, 1997. 12, *World Economic Outlook : Interim Assessment*.

_____, 1998. 5, *World Economic Outlook*.

Krugman, Paul, 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Vol.73
(November-December), pp. 62-78.

Sarel, Michael, 1997, "Growth and Productivity in ASEAN Countries", *IMF Working Paper*.

World Bank, 1998, *Global Development Finance : Analysis and Summary Tables*.

_____, 1998, *Global Development Finance : Country Tables*.

Young, Alwyn, 1992, "Tyanny of Numbers : Confronting the Statistical Realities of the East Asian Growth Experi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0(August), pp. 641-680.

<참고 1>

태국의 주요 경제지표

	1996	1997					1998		
		I	II	III	IV	연간	I	4	5
경상GDP(억달러)	1860					1590			1230
일인당GDP(달러)	3093					2619			2011
실질 GDP 성장률(%)	6.4	-	-	-	-	-0.4	-	-	-
CPI 상승률(%) ¹⁾	5.9	4.4	4.3	6.3	7.3	5.6	9.0	10.1	10.2
경상수지(억달러)	-147	-21	-33	-7	29	-32	42	9	..
상품수지(억달러) ²⁾	-165	-32	-32	-6	25	-45	32	6	10
수출(억달러) ³⁾	544	136	143	146	149	574	135	42	43
	(-1.8)	(-0.7)	(7.5)	(8.1)	(7.2)	(5.5)	(-0.7)	(-1.9)	(-12.8)
수입(억달러) ³⁾	709	168	175	152	124	619	103	35	34
	(-1.6)	(-8.3)	(-3.8)	(-12.6)	(-27.5)	(-12.7)	(-38.7)	(-39.1)	(-39.3)
외채잔액(억 달러) ⁴⁾	908	..	930	933

주 : (1) 기간중 평균,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2) 통관기준

(3)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4) 기말기준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The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1998.

WEFA, *Asia Economic Outlook*, 1998. 4.

Reuters, Bloomberg

<참고2>

태국의 금융회사 정리 조치(12월 8일)

△ 영업 재개를 허용한 2개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이들 2개 회사는 90일 이내에 증자(增資) 등을 통해 BIS 기준 自己資本比率을 15%까지 높일 경우 영업재개 허용
 - * Kiatnakin Finance and Securities Plc와 Bangkok Investment Plc임.
 - 이 기간 중에는 외환위기 이후 신설된 金融再建廳 (FRA: Finance Sector Restructuring Authority)이 감독하여 영업재개 후에는 중앙은행이 감독
- 정부는 동 회사의 預金과 債務를 지급보증하되 추가적 자금지원은 하지 않을 예정

△ 폐쇄된 56개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金融再建廳 (FRA)이 56개 금융회사 관리
 - 金融再建廳 은 각 회사별로 재무부 및 중앙은행 직원과 민간채권자들로 구성되는 委員會를 설치하고 회계전문가를 특별 관리인으로 선임
- 그리고 1998년 1월중 優良資産 및 不實産業을 분류하고 56개 금융회사의 채권자를 주로 하는 1-2개 은행을 신설하여 新設銀行이 56개 금융회사의 우량자산을 관리·처분
 - 新設銀行은 1998년 2월~12월 중 실시 예정인 우량자산 매각시 다른 금융기관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 가능
 - 부실자산은 외환위기 이후 신설된 정부 출자의 資產管理公社(AMC; Asset Management Corporation)에 이관되어 4~5년에 걸쳐 처리
 - * 금융재건청도 1998년 2월 ~ 12월 중에는 일부 부실자산을 관리
- 이들 金融會社가 발행한 어음(promissory notes)은 Krung Thai Bank Plc.와 Krungthai Thanakit Plc.가 발행하는 정부보증어음(note)과 교환
- 한편 기존의 주주에 대해서는 預金 및 負債를 상환하고 남은 잔여분에 대해서

만 청구권을 인정하며 이들 금융회사로부터의 우량차입자는 신설 은행과 거래
재개 가능

△ 영업중인 33개 금융회사 및 15개 은행에 대한 조치

- 정부는 영업중인 33개 금융회사와 15개 상업은행에 대해 預金 및 負債를 지급
보증하는 한편 自己資本比率을 확충하기 위한 증자를 요청

자료 : 한국은행, “태국 및 인도네시아의 외환위기 대응과정”, 1998. 1, p. 7.

<참고3>

태국 금융기관별 구조조정 내역

Bangkok Bank : 410억 바트 증자 완료

Thai Farmers Bank : 330억 증자 완료

Krung Thai Bank : First Bangkok City Bank, Bangkok Bank of Commerce 인수

First Bangkok City Bank : Krung Thai Bank가 인수

Siam Commercial Bank : 400억바트 증자 완료

Bank of Ayudhya : 50억바트 증자 완료

Thai Military Bank : 외자유치계획

Bangkok Bank of Commerce : 우량자산을 Krung Thai Bank에 이관 후 폐쇄

Siam City Bank : 정부가 구조조정 지원 후 민영화 계획

Bank of Asia : ABN Amro 은행주식 75% 참여

Nakomthon Bank : 정부지원 후 Standard Chartered Bank, Bank of Nova Scotia
가 인수 예정

Thai Danu Bank : 싱가포르 DBS은행 50.3% 지분 참여

Bangkok Metropolitan Bank : 정부가 구조조정 지원 후 민영화 계획

Union Bank of Bangkok : Krungthai Thanakit가 인수

Laem Thong Bank : 국영 Radhanasin Bank가 인수

Krungthai Thanakit : 5개 종금사 및 Union Bank 합병을 통해 일반상업은행으로
전환 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 예정(98.5월 7개 종금사 기 합병)

* 태국 금융개혁의 결과 은행금융기관은 현재 16개에서 12개(4개 은행폐쇄), 금융
회사는 24개만 남게 됨.

자료: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 제98-33호.